

시간이 멈춘 골목... 옛 LP·영화 포스터로 본 세상

한눈에 봐도 오래 돼 보이는 듯한 옛 LP와 포스터, 회화 작품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흔히 보는 회화 위주의 현재적 전시가 아니다. 과거의 시간을 호출하는 전시다. 실제 퇴락한 광주 도심 한 골목에 들어선 갤러리가 이색 전시를 열고 있다.

전통 촌락의 모양을 한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 갤러리가 있을까도 통 믿음이 가지 않는 골목이다. 그런데 골목 중간쯤에 '예륜'이라는 작은 간판 하나가 멀찍이서 눈에 들어온다. 가정집들이 즐비한 이곳 2층 양옥집을 리모델링해 1층에는 전시 공간이, 2층에는 사무실과 음악감상실, 게스트하우스 공간이 들어서 있는 형국이다.

이곳은 한국화가 오창록씨가 2년 전 광주시 서구 발산로 49번길 20

-1번지에 예륜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30평 규모의 갤러리 동지를 틀었다. 물론 이곳은 젊은층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 갤러리를 운영하기에는 불리한 여건들이 있지만 오 작가는 이곳을 베이스캠프삼아 전시를 열고 각종 문화기획 및 작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 작가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가톨릭 총무일도 보던 때가 있었다. 그런 인연 때문인지 쌍촌동 소재 천주교광주전남대교구(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비유나눔페스티벌'을 2017년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그는 '비유나눔페스티벌'을 만들어 1회부터 3회까지 총감독을 맡아 일했을 만큼 가톨릭에 대한 이해가 깊다.

오 작가가 갤러리 문을 열고 개막전으로 선보인



‘홍화야 우지마라’ (1964년 제작) 포스터

‘음악과 미술이 만나는 뮤직&아트뱅크’전 ‘모래시계’ 구훈 감독과 오창록 작가 기획 6월 8일까지 양동 예륜커뮤니티갤러리서

한국화가 오창록 작가 (왼쪽)가 ‘모래시계’ 음악감독을 역임했던 구훈 음악감독과 공동으로 ‘음악과 미술이 만나는 뮤직&아트뱅크’전을 10일 개막, 오는 6월 8일까지 광주시 서구 발산로 49번길 20-1번지 예륜커뮤니티갤러리에서 갖는다.



‘투캅스’ (1998년 제작) 최경식 음악 포스터

전시와 박상화 작가의 미디어아트전이였다. 이 미디어아트전을 통해 갤러리의 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그후 두 차례 더 전시를 열었다. 예륜커뮤니티갤러리는 오 작가가 8년 전 결성했던 영리 법인 단체이자 문화예술기획단체인 예륜협동조합의 연장선상에 있는 갤러리로 이해하면 된다. 한동안 뇌리에 잊혀지지는 않았던 이곳이 문화예술계 안팎에 다시 각인되기 시작했다. 협업 전시를 통해 얻어온 수익금을 참여작가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오 작가의 생각이었던 만큼 이번 전시 역시 마찬가지다.

오 작가는 음악과 미술이 만나는 전시를 연다고 밝혔다. 10일 개막해 오는 6월 8일까지 예륜커뮤니티갤러리에서 진행될 ‘음악과 미술이 만나는 뮤

직&아트뱅크’전이 그것이다. 이 전시에는 시간이 머문듯한 LP와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의 포스터가 한 가득 출품됐다.

오 작가가 예전부터 형님, 동생으로 지내온 만큼 막역한 구훈 음악감독(본명 구자원)이 소장하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구훈 감독은 1995년 방영된 SBS 명작 드라마 ‘모래시계’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구 감독과 공동기획으로 마련된 것이다. 구 감독은 전시 개막에 앞선 9일 전시장을 찾아 몇몇 전시물을 교체했다고 한다.

이번 광주에서의 전시는 이미 진행한 바 있는 LA 전시나 세종문화회관 전시보다 더 알차고 풍성하다는 귀띔이다. 전시에는 찾아서 보려 해도

보기 힘든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옛 LP 케이스 200장, 영화음악 위주의 앨범 등의 포스터 30여장, 회화 작품 22점, 그리고 진공관 오디오, 옛 비올라, 오 작가가 직접 구한 영사기 등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으며, 대중가요 등 유명 곡들을 차원이 다른 진공관으로 구현, 귀에 속속 박히는 소리들을 영접할 수 있어 더 흥미롭다.

나이 지긋한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 불거리가 그치지 않던 주민들에게 이미 진공관 소리를 선보인 바 있는 듯 보였다. 이에 대해 오 작가는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설명했다.

오 작가는 갤러리 오픈 이후 이번 전시와 같은 뮤직을 베이스로 한 ‘음악과 미술 협업’을 자체 기획으로 지속해나갈 계획 중이다.

오창록 작가는 “예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 선순환구조를 통해 건설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예술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보자는 점이 제가 이번 전시 같은 것을 열게 된 이유다. 또 같이 협업해 상생을 도모할 것이다. 나는 뭐든 재미가 없으면 안한다. 뭐든 내가 재미있어야 다른 사람도 재미가 있지 않겠냐”면서 “앞으로 음악 장자들은 그대로 놔둘 것이다.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 방문객들을 위해 1시간 정도 스토리라는 감상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음악적 요소를 기미해 캠핑 등 여러 즐길 거리를 모색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평범한 삶, 무대 위 특별한 울림 ‘색소폰으로 꽃피다’

모던색소폰오케스트라 창단,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생활예술인 32명 단원 무대에... 플루트·보컬 협연도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인생 2악장, 다시 파는 봄’이라는 타이틀로 오는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창단연주회를 갖는 모던색소폰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의 이야기다. 이번 공연은 타이틀에서 엿볼 수 있듯 단순한 창단 무대를 넘어, 이들의 인생 2막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모던색소폰오케스트라는 전문 연주자가 아닌 생활예술인 중심으로 2024년 12월 결성된 아마추어 단체다.

1년 밖에 되지않는 신생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고창군수배 전국색소폰양상발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실력을 입증했다.

변호사와 목사, 약사, 교원, 언론인, 가정주부 등으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온 이들로 구성된 20대부터 80대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이들은 무대와 연습실 안에서 오직 하나의 방향과 목표로 호흡을 맞춘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 서로의 직업과 나이도 내려놓은 채 음악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돼 이번 창단 무대를 준비했다.



아마추어 연주단체인 광주모던색소폰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진제공=광주모던색소폰오케스트라

이번 공연의 지휘와 음악감독은 황태용 교수(호남신학대 음악학과)가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오케스트라 구성에 맞춘 섬세한 편곡은 뉴욕에서 재즈오케스트라 작·편곡을 전공한 최수희 작곡가가 담당해 음악적 깊이를 더했다. 무대에는 32명의 단원이 참여해 세월과 경험이

녹아든 깊이 있는 앙상블을 선보인다. 공연은 영국 록밴드 퀸의 정규 4집 수록곡 ‘보헤미안 랍소디’로 강렬하게 문을 연다. ‘Waltz of Love’와 ‘Autumn Leaves’ 등 서정적인 곡들이 감미로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신문의 ‘아름다운 나라’,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등 한국 정서를 담은 곡까지 다채

롭게 구성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색소폰 박수용, 플루트 김규향, 보컬 김은영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해 음악적 깊이를 더하며, 댄스스포츠와의 협업 무대는 공연에 색다른 생동감과 몰입을 더해 것으로 기대된다.

양동학 모던색소폰오케스트라 단장은 “단원들은 학생부터 정년퇴임을 한 연장자까지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색소폰과 플루트라는 공통분모로 만났다”며 “처음에는 투박했던 소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숨소리를 경청하고 박자를 맞춰 마음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어울림이 있는 화음으로 곡을 완성해나가기에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첫 연주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전문 연주자의 안목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나, 음악을 대하는 태도 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며 “창단 멤버들이 지난 1년간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색소폰 특유의 감미로운과 호소력 짙은 음색이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이 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연은 전석초대.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ACC재단, ‘와글와글 도서관’ 운영 18일까지... 북콘서트·멘토 강연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사장 김영규)은 도서관의 날(4.12)과 도서관 주간(4.12~18)을 맞아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들을 위한 ‘와글와글 도서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공체가 함께 어린이의 독서 문화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 아래, 광주동부경찰서,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어린이 도서관연구회 광주지부 등 지역의 역량 있는 기관들이 힘을 모아 내실 있는 행사로 구성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1시에는 광주동부경찰서와 연계한 ‘안전 북콘서트’가 열렸다. 현직 경찰관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안전 지식을 전달하며, 책부 입은 경찰관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안전 의식을 심어줬다.

같은 날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는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멘토들의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이 이뤄졌다. 미래의 사서를 꿈꾸는 전공 대학생들이 아이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선순환 교육 모델을 선보였다. 이어 오는 18일 오후 2시에는 독서 교육 시민단체인 어린이 도서관연구회 광주지부와 협력해 학부모 대상 특강을 운영한다. ‘이렇게 책을 읽어주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신화숙 강사가 가정 내 올바른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다.

김명규 사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의 경찰, 대학, 시민단체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어린이문화원 외 글와글 도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무등산서 울려 퍼지는 전통의 숨결 ‘토·토·전’

광주문화재단, 토요일상설공연 공개

전통공연예술 활성화 위해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선보이는 ‘2026 토요일상설공연’이 돌아온다.

광주문화재단은 전통공연예술 활성화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2026 토요일상설공연’ 작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지난 2012년 시작해 올해 15주년을 맞은 토요일상설공연은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

에서 놀자)’을 슬로건으로 누적 관객 20만 명을 돌파하며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 상설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2026년 시즌은 ‘시민이 있는 문화·예술’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공연과 체험이 결합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토요일을 책임질 예정이다.

첫 무대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전주판소리합창단의 ‘판소리 다섯바탕 전 - 오색오라(五色樂)’이 열렸다. 전주판소리합창단은 판소리합창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가운데 이번 공연에서 판소리 다섯바탕을 합창과 아카펠라로 재해석한 창작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의미를 담은 창작곡 ‘남도유랑기’를 초연했다.

토요일상설공연은 매주 주제를 달리해 총 25회 운영된다. 매일 첫째 주는 판소리·산조 무대가 펼쳐지

며, 고혜수·최지혜(5월 2일), 조수향·김보람(6월 6일), 송혜원·최성옥(7월 4일), 윤상미·신소영(9월 5일), 김다정·김효빈(10월 3일)씨가 출연한다.

매일 둘째 주는 국악창작 무대로 전주판소리합창단(4월 11일), 비담(5월 9일), 협동조합 효성(6월 13일), 디담(9월 12일), 아트컴퍼니 모디(10월 10일)가 무대를 준비하고, 매일 셋째 주는 연희·무용 무대로 (사)지산농악보존회(4월 18일), 더댄스컴퍼니(5월 16일), 무가향 몸짓(6월 20일), 오하(9월 19일), 타악그룹 얼수(10월 17일)가 무대를 올린다.

매일 넷째 주와 다섯째 주는 무형유산 초청무대로 방성춘 동초제 출항가, 문명자 가야금병창, 이순자 출항가, 이영애 가야금병창, 황승욱 가야금병창, 김선이 동초제 흥보가, 최연자 강산제 심청가, 양신승 고비단, 불교영산재보존회의 무대를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공연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통문화관 난립마당에서는 ‘고구려 벽화 속 연희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토요일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무료로 진행되며,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주판소리합창단